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자료**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4월 29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 28.(금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4. 28.(금)	담당부서	조선해양플랜트과, 지역산업과
담당과장	강감찬 과장 (044-203-4332) 정경록 과장 (044-203-4420)	담 당 자	주세형 서기관(044-203-4332) 황승완 사무관(044-203-4422)

주형환 산업부 장관, 친환경 선박 기자재 현장 방문

- 조선기자재 업체 선보공업을 방문하여 친환경·스마트 선박 시장 선점 강조 -

□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. 28.(금) **친환경 선박용 기자재** 제조 기업인 **선보공업**의 생산현장을 방문했다.

< 방문 개요 >

○ 일시·장소: '17. 4. 28.(금) 13:30~14:30, 선보공업(부산시 사하구)

* 선보공업: LNG선 가스 공급·압축·재기화 기자재 및 엔진 부속품 생산, '16년 매출액 1,700억원, 현대중·현대미포·삼성중·대우조선·성동조선 등에 납품 중

○ 참석자: 산업부 장관·시스템산업정책관, 선보공업 대표·부사장 등 7명

○ 목적: 친환경 선박 기자재 생산현장 점검, 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

○ 주 장관은 액화천연가스(LNG)선 핵심 기자재*와 엔진 부속품을 생산 중인 선보공업의 **생산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**했으며, **조선 기자재 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**했다.

* 액화천연가스(LNG) 압축시스템,액화천연가스(LNG) 연료공급장치, 액화천연가스(LNG) 재액화시스템 등

□ 주장관은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*, 2017년 9월 평형수 처리장치 탑재 의무화 등 국제해사기구(IMO) 환경규제 시행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**친환경·스마트 선박 시장이 확대**될 것으로 보고, **선제적 대응**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* '20.1월 전 해역 선박연료 황산화물(SOx) 함유기준 강화 (3.5%→0.5%), '16.1월 질소산화물(NOx) 배출기준 약 80% 강화

○ 특히, 동 분야에서 **경쟁력을 갖고** 있으므로 **조선사와 기자재 업체 간 협력**을 통해 이를 **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**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
○ 아울러, 정부는 친환경·스마트 선박 경쟁력 강화를 위해 **2018년말까지** 가스공사, 부산시 등 **공공기관에 액화천연가스(LNG)추진선 4척 시범도입*을 완료**하고,

* (가스공사) '17.4월 2척 발주 → '18년말 인도, (부산시) '17년내 신조 1척, 개조 1척 발주 → '18년말 인도

- 창원과 군산 내 **기자재 시험·평가 센터** 신설을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**약 200억 원**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또한, 국산 기자재의 **실선탑재 실적 확보**를 위한 친환경·스마트 선박 **실증사업 추진도 검토**하겠다고 말했다.

* 실증해역 지정, 실증선 건조(민간 투자), 개발 기자재 실선 탑재 및 성능 검증

□ **선보공업**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**엔진 부속품 위주에서** 액화천연가스(LNG)연료 공급 장치, 평형수 처리장치 등 **친환경 선박용 기자재 분야로 사업을 확대**하고 있다고 소개하고,

○ **개발제품 실증, 해외시장 진출**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으며, **주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.**

□ 주 장관은 조선업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기자재 업계의 **사업재편 및 사업다각화, 해외시장 진출 지원**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.

○ 그간 정부는 **기활법**을 통해 13개 조선 기자재 업체의 **사업재편 계획을 승인**했으며, 올해 **7개 이상**을 추가 지원하고,

○ 연구개발(R&D), 사업화 등 **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*** 지원 기업도 **현재 156개에서 올해 말까지 200개로 확대**할 계획이다.

* 연구개발(R&D), 사업화, 투자보조금, 사업전환자금, 기활법 사업재편 지원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4-28 10:59:16

○ **7개 에너지 공기업***과의 협의체 구성, 현장 설명회, 납품제도 개선** 등을 통해 3월말까지 **74건(32개 회사) 1,048억원 규모**의 계약 실적을 달성했으며, 향후 납품 안내서 배포,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**올해 말까지 3,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.**

* 7개 에너지 공기업: 발전 5사, 가스공사, 한수원

** 발전 5사 기자재 공급자 등록 심사시 조선소 납품실적 인정('16.8월), 등록 신청기준 한시적 완화('17.3~'18.12월, 신용등급 B 이상 → CCC 이상)

○ **기자재 해외 고객서비스(AS) 센터**를 상해, 싱가폴 2개에서 유럽, 중동 지역까지 4개로 확대하고, **해외 벤더등록 지원, 바이어 상담회** 등을 통해 **기자재 수출도 2016년 14.5억 달러에서 2020년 20억 달러**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주세형 서기관(☎ 044-203-4332), 황승완 [illegible] '4-203-44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Minist
Indus